



유아인

〈프로야구 선수 30%의 연봉〉

〈FA 빅3 계약총액〉

2700만원 vs 300억원 프로야구 '불편한 몸값'



‘빅3’의 행선지가 정해졌다. 최정과 이재원은 원 소속팀인 SK 와이번스에 잔류했지만 ‘최대어’ 양의지(왼쪽부터)는 두산 베어스를 떠나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는다. 이들의 몸값만 합쳐도 300억원이다. ‘FA 100억 시대’가 열렸지만 선택받은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은 저연봉 고층에 시달린다. ‘부익부 빈익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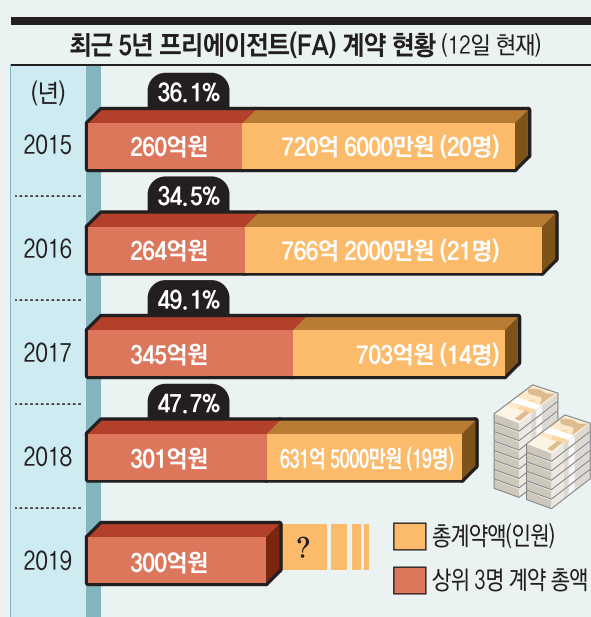
스포츠동아 DB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연속 FA 빅3 몸값 300억원 돌파
FA 거품 논란 속 부익부 빈익빈 심화
구단들 상한제 들먹이다 스스로 어저
선수 30%는 4년째 최저연봉에 묶여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SK 와이번스와 NC 다이노스가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서 300억원의 ‘돈바람’을 일으키는 데 걸린 시간이다. SK가 내야수 최정과 6년 총액 106억원, 포수 이재원과 4년 총액 69억원의 FA 잔류 계약을 알린 때는 지난 5일. 그로부터 6일 만인 11일 NC는 두산 베어스 출신 포수 양의지와 4년 총액 125억원에 계약했다. 두산에 지불할 12억원 또는 18억원의 보상금까지 합치면 NC가 FA 포수 1명을 잡는 데 쓰는 돈은 최대 143억원이다.

지난달 20일 개장한 2019년 FA 시장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이른바 ‘FA 거품’ 제거 여부였다. KBO



와 10개 구단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 4년 총액 80억원의 FA 몸값 상한제를 제안했던 지난 가을을 떠올리면 과열된 FA 시장의 규모가 진정 또는 축소 국면으로 전환될 여지는 충분한 듯했다. 그러나 ‘빅

3’만으로 가볍게 300억원을 채웠다. FA 거품과 더불어 이제는 KBO리그 전반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년 연속 상위 3명이 300억 넘게 독식

KBO리그의 FA 시장은 이미 5년 연속 500억원 이상 규모로 커졌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700억원도 뛰어넘었다. 일반서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하면 ‘오버페이’ 논란은 불가피한지 모른다. 여기에 더해 극소수 거물 FA들의 몸값은 어느새 100억원이 기준점처럼 돼 버렸다. 매년 FA 상위 3명의 계약 총액을 따져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총액 500억원의 서막이 열린 2014년 FA 시장부터 상위 3명이 확보한 계약 총액은 212억원→260억원→264억원→345억원→301억원에 이어 2019년 FA 시장에서도 300억원을 찍었다. 3년 연속 상위 3명이 합계 300억원 이상이다. 공교롭게도 최형우(KIA 타이거즈)와 이대호(롯데 자이언츠)가 앞 다퉈 ‘FA 100억원 시대’를 연 2017년부터 매년 ‘빅3’가 평균 100억원대의 초대형 계약을 따내고 있다.

●부익부빈익빈, KBO리그의 또 다른 그림자

2019년 FA 시장에는 아직 11명의 미계약자가 남아있다. 이들 가운데 총액 30억원을 넘길 만한 FA는 3~4명 정도로 예측된다. 나머지 중에선 자칫 ‘FA 미야’도 나올 수 있다. 실력과 경력이 판이한 만큼 FA 각자의 몸값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는 게 당연하다. 다만 평균 100억원대 목돈을 챙기는 FA가 늘어날수록 그들 사이의 격차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연봉 선수들과 팬들이 체감하는 부익부빈익빈의 심화다.

올해 초 KBO가 발표한 프로야구선수(신인·외국인선수 제외) 513명의 평균 연봉은 1억5026만원이다. 이대로라면 프로야구는 꿈의 직장이다. 그러나 164명의 역대연봉자를 제외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신인까지 포함한 전체 선수의 절반 이상은 5000만원 미만이고, 30%는 4년째 2700만원으로 묶여있는 최저 연봉을 받는다. ‘FA 100억원 시대’가 일깨우는 불편한 현실이자 KBO리그의 또 다른 그림자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벤티 황태자’ 황의조와 ‘겁없는 막내’ 조영욱의 만남 ▶ 3면

두산 박세혁의 각오 “양의지형 없어도 우린 강하다” ▶ 6면

CJ CHEILJEDANG

하루 1포로 효소에 홍삼까지!

CJ CHEILJEDANG 건강의 핵심
HOPE 발효효소액티브 3g

홍삼 함량을 3.3배 높여 더 좋아진 HOPE 발효효소액티브 Active

1 자신있는 효소 함량!

HOPE 발효효소액티브는 효소를 보충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잘 분해되고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1포에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가 각각 4,500(U) 이상씩 들어 있어, 하루 1포로 무약 3/4개, 킬로 약 3개 만큼의 효소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HOPE 발효효소액티브로 일상의 건강을 챙기세요!
(7위) 76 g / 무 400 g 기준, 자체실험결과

2 1포에 진세노사이드 5mg 함유

활기찬 일상을 위해 홍삼까지 더한 HOPE 발효효소액티브 1포에 홍삼고유의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Rg1 + Rb1 + Rg3)를 5 mg 담았습니다. 기존보다 홍삼 함량이 3.3배 증가되어 더욱 더 좋아진 HOPE 발효효소액티브 하루 1포로 효소와 홍삼의 건강을 함께 누리세요.



3 6가지 건강 곡물의 발효 영양!

6가지 건강곡물(밀, 귀노아, 현미, 귀리, 렌틸콩, 찰보리)을 발효하여, 효소뿐 아니라 발효곡물의 영양까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밀, 퀴노아, 현미, 귀리, 렌틸콩, 찰보리

4 믿을 수 있는 CJ제일제당의 기술력

HOPE 발효효소액티브는 CJ제일제당에서 수년 여의 연구를 통해 최적의 발효균주와 발효조건을 찾아냄으로써 탄생된 제품입니다.



CJ제일제당 홍삼연구소 CJ 발효팩토리 (GMP 인증 시설 보유)

홍삼 함량 UP!
구매 혜택도 UP!

2+2 2세트 구입 시
2세트 데!



더 좋아진 HOPE 발효효소액티브
지금 바로 만나 보세요

*본 제품은 약품도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류상담 및 주문

080-722-9988